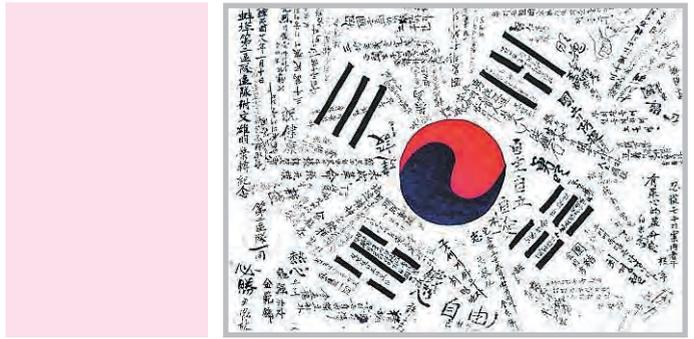




- 특집 _ 동포 문인의 산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 화제 _ 국군의 뿌리이자 임시정부 정규군 대한민국 광복군 창설 80주년 맞아
- 초점 _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시동 걸었다



재외동포들의 역동적인 삶의 기록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야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재외동포 관련 대목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거지에서의 추방이나 기약 없는 민족의 이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조선 후기에 시작된 한국인의 국외 이주는 일제 강점기에 더욱 확산되었다. 생존을 위해 떠난 사람도 있었고, 항일 투쟁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으며,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6·25전쟁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가 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현재 70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지구촌 세계에 살고 있다.'(해냄에듀 출판사 발행, 2015 한국사 교과서, 195쪽).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은 주로 간도, 만주, 연해주, 하와이, 일본, 멕시코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주과정이다. 독립운동과 연계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지만 재외동포 전체상을 이해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분량과 내용임에 틀림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2015 개정 역사과 핵심역량 중에서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역과 관련되는 역량은 '역사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과 '정체성과 상호 존중'이다. 그 중에서도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은 정체성과 상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어떻게 하여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고통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여 현재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사회(2019년 외교부 통계)의 형성과정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역사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기술은 조선 말과 일제 강점기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떠한지를 논의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구촌 시대, 세계화, 다문화사회 등으로의 변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착 한민족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매우 협소한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지식과 관점만을 다루고 있는 현재의 교육상황은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정체성과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기술이 좀 더 깊이 있는 구성과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단계에서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외동포재단과 협력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다. 우리 재외동포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조직에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주제 중심, 탐구 중심 교육의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재구성되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 관련 교육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학교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경주해야만 한다.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한류 문화와 K-방역으로 우리의 세계적 위상은 그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기운을 받아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역동적인 삶의 기록과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창



- 02 권두언 재외동포들의 역동적인 삶의 기록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야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04 특집 동포 문인의 산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 06 화제 국군의 뿌리이자 임시정부 정규군 대한민국 광복군 창설 80주년 맞아
- 08 초점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시동 걸었다
- 10 글로벌 코리아 '라오스의 현대그룹' 일군 오세영 코리아그룹 회장
인력사 반대 영화 만든 뉴질랜드 한인 감독 양중찬
18년간 편부모 대학생에게 장학금 준 김예자 이사장
- 12 한민족 공감 전 세계 한국인 생명공학자들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로 힘 합친다
- 13 주목! 차세대 유튜브 음악 채널 개설한 호주 동포 주소현
- 14 동포소식 10개국 16개 도시에서 월드옥타 차세대 창업 무역스쿨 외
- 17 동포 캘린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창업과 벤처사업 지원 위한 '스텝 업' 개최 외
- 18 유공 동포 1 '디아스포라 문학의 개척자' 조명희
- 19 유공 동포 2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된 '복창동순두부' 이희숙 대표
- 20 지구촌 통신원 1 아베 일본 총리의 세 번째 집권은 가능할까?
- 21 지구촌 통신원 2 '한 번에 100억 매출' 대륙의 인플루언서 왕홍(網紅)
- 22 동포문학 '왜지나무'(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수상작)
황연(중국)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국방홍보원과 함께 재외동포 호국인물 발굴·홍보에 나선다 외
- 25 기고문 영화 통해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최재광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 26 재단공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취소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포 문인의 산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황연(중국)의 ‘왜지나무’ 등 6개 부문 34편 선정

수상자 거주국 관할 공관에서 상금과 상패 전수식 개최

재외동포 문인의 산실인 재외동포문학상이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재외동포재단은 9월 7일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수상작 34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1999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는 59개국에서 모두 1천329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국내 문단에서 존경받는 문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상작을 가렸다.

성인 부문에서는 ▲시 부문 황연(중국) 씨의 ‘왜지나무’ ▲단편소설 부문 김수연(캐나다) 씨의 ‘혜선의 집’ ▲체험수기 부문 김진아(프랑스) 씨의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이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올해 신설한 입양수기 부문에서는 호주의 하나 크리스프(Hana Crisp) 씨가 ‘Mother, Lost and Found’로 대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에는 ▲중·고등부 김미혜(중국) 양의 ‘가을비의 사랑법’ ▲초등부 신울(중국) 군의 ‘별’이 각각 선정됐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중국 칭다오한글학교 ▲캐나다 제키나한글학교 ▲미국 다송한국학교 ▲오스트리아 비엔나한글학교 ▲아제르바이잔 바쿠한글학교에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올해는 체험의 치열성이 묻어나는 감동적인 작품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경험담이



많았다”고 평가한 뒤 “독자들에게 재외동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다양한 국가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주목같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면서 “모국을 향한 재외동포들의 따뜻한 마음이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잘 전달되도록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34명에게는 상패와 100만~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글학교 5곳에도 50만~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한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거주국 관할 공관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장**

심사평

시 신달자(시인)

응모자들의 해외 거주 기간을 보니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50년이 넘었다. 모국어에 대한 언어 감각과 활용이 예민하고 높아 놀라웠다. 예년보다 점점 더 다양한 나라에서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또 작품의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심사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다.

가족사에 대한 기억, 유년의 경험, 고향의 공간 등을 통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 느낀 시적 감흥을 창작의 재료로 삼은 작품도 많았다. 현재의 시공간에서 느낀 시상을 쓴 작품 가운데는 여러 편의 수작을 만날 수 있었는데, 창작자가 곧바로 그곳의 언어로 바꿔서 발표한다면 그곳 문단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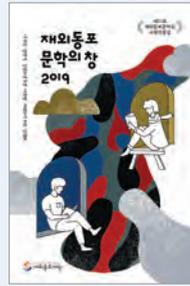
마지막까지 '왜지나무', '깜보자꽃', '수국여행'을 놓고 고심한 끝에 대상작은 '왜지나무'로 결정했다. 중국 동포가 쓴 이 작품은 낡은 집을 수리하고 나무를 기르는 아버지의 노동에 관한 기억을 풀어냈다. 모국어의 미감을 잘 살렸고, 묘사와 비유 등이 빼어났다.

단편소설 구호서(소설가)

응모작의 수준이 갈수록 매우 가파르게 향상한다는 점 때문에 해마다 놀란다. 재외동포문학상이 아니었다면 국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모국어 표현 욕구와 창작 열망은 경쟁과 격려의 여건 없이 진행된 자족적 글쓰기에서 멈추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도 많은 응모작이 괄목할 만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노틀란드의 송이버섯'은 22년째 스웨덴에 살고 있는 동포의 작품인데 지금 서울에 살며 쓴 소설이라고 해도 곧이들릴 만큼 한국어 감수성이 생생하다. '어시스턴트'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묘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내가 차버린 공'은 가족을 위한 일이 가족 해체의 결과로 이어지는 슬픈 현실 앞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달리는 마카우'는 케냐 한 부족의 가족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는 수작이며, '이분을 모르면서'는 은근하고 과묵하면서도 날렵하게 사람의 가슴을 치고 들어온다. 대상 수상작 '혜선의 집'은 당장 국내 우수 문학잡지에 발표해도 손색이 없다. 몸과 마음의 세밀한 균열의 틈새들을 긴장감 도는 상황 묘사와 감성적인 문장으로 날날이 돋을새김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체험수기 은희경(소설가)

심사위원들은 진실하게 쓰고,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삶의 뿌리를 내린 과정을 진솔하게 서술하며, 재외동포는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글을 가려 뽑기로 했다.

대상에는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이 만장일치로 뽑혔다. 커다란 사건 없이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을 깊이 있고 개성적으로 그려냈다. 죽은 한국인 아내의 책을 나눠주는 프랑스 노인과 그 오래된 책에서 발견하는 이방인의 시간이라는 연결도 자연스럽다.

우수상 수상작은 정돈된 생각과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아르헨티나 정착기 '한국 햄버그'와 무협지 같은 긴박감에 다채로운 현장감이 더해져 흥미를 자아내는 '시베리아 찬 바람 속에서 11년 인생살이'로 정했다.

청소년 글짓기 박상우(소설가)

응모작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니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럽고 힘겹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일들도 자주 거론되어 일견 대견하게 여겨졌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공통적인 소재로 눈길을 끈 것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육아와 돌봄의 문제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았던 청소년들의 경험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초등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별'도 할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얻어진 대범한 자각을 보여주고 있어 큰 공감을 자아냈다.

중고등부에는 아픈 사연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적 성장의 동기로 삼아 더욱 굳건한 자세를 보여준 글이 많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최우수상으로 '가을비의 사랑법'을 가려냈다. 시련과 아픔이 가득한 내용임에도 그것을 수용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이를 데 없이 넉넉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다. **창**

국군의 뿌리이자 임시정부 정규군 대한민국 광복군 창설 80주년 맞아

중국 충칭에서 첫발... 국내 진공작전 세웠다가 무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임시정부 정규군이었던 광복군 창군 제80주년 기념식이 9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독립운동가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광복군 선언문 낭독, 김영관 한국광복군동지회장의 기념사, 독립군가 합창,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은 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광복군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6·25전쟁 당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더욱 전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된 지 33년, 임정 수립 21년 만의 일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국권을 빼앗긴 뒤로 우리 동포들은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겨 독립군을 결성했다. 1919년 3·1운동에 이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무장투쟁의 열기가 고조됐다.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열고 이듬해 봉오동·청산리대첩이라는 빛나는 전과를 거뒀다. 미국에서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소인 윌로스한인비행학교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일제의 무자비한 보복과 탄압, 러시아혁명 후 소련의 배신, 독립운동 진영의 내분 등으로 독립군 세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오랜 노력 끝에 임시정부는 장제스(蔣介石) 중국 주석의 동의와 미주 한인사회의 재정 지원 약속을 얻어 내 1940년 9월 17일 충칭(重慶)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광복군을 창설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21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지 33년 만의 일이었다.

1941년 1월에는 무정부주의 계열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아우르고, 1942년 7월에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1지대를 편입시켜 비로소 독립군 부대로서 통합조직의 틀을 갖췄다. 일제가 막판에 학병과 징병이란 이름으로 조선 청년들을 군대에 동원하자 중국 전선에 배치된 조선의 청년 병사 일부가 부대를 탈출해 광복군을 찾아오기도 했고, 한중 연합군에 포로로 붙잡힌 뒤 광복군에 투신한 사례도 있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하루 뒤 국무회의를 열어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교부장 명의로 일본에 전쟁을 선포



4

했다. 1951년 9월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조약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 일원으로 활약

광복군은 중국군 지휘를 받아 중일전쟁에 참전하는 한편 1943년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를 구성해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병했다. 공작대원들은 영국군에 배속돼 감청, 선무 공작, 포로 심문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때 영국군 연락장교를 맡은 캐나다 출신의 롤런드 클린턴 베이컨 대위는 한국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일해 한국어가 능통했다. 국가보훈처는 그의 공로를 뒤늦게 인정해 올해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미국 정보기관 OSS는 광복군을 국내로 잠입시킨 뒤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일 때 안에서 돕게 하는 일명 독수리작전을 세웠다. 광복군 대원들이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하고 일본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정에 밝기 때문에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945년 5월 21일부터 1기생 50여 명이 중국 시안(西安) 근교의 비밀기지에서 OSS 교관으로부터 사격, 폭파, 침투, 독도법, 무전기 사용법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훈련은 8월 4일 끝났고 수료자는 38명이었다. 20여 명의 2기생 훈련도 7월 7일 시작됐다. 8월 7일 OSS 책임자 윌리엄 도너번 소장은 김구 주석, 지청천 총사령관, 이범석 2지대장에게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통보했다. 8월 20일까지 4~5명씩 공작반 8개조를 편성한 뒤 낙하산이나 잠수정으로 한반도에 침투시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출발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일본의 항복 소식이 들려왔다. 김구 주석은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땅을 치며 탄식했다.

이국땅에서 출범했다가 해산되는 비운 겪어

임시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광복군을 국내에 진입시키려고 선발대를 미군 군용기에 태워 보냈다. 이범석·장준하·김준엽·노농서 등 4명이 미군 선발대와 함께 8월 18일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내렸으나 그때까지 무장을 풀지 않은 일본군의 반대에 부딪쳐 광복군들은 이튿날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5



6

임시정부는 일본군에 소속된 한국인 병사를 중심으로 10만 명의 광복군을 조직해 귀국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에도 광복군 국내지구사령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은 ‘사실 군사단체 해산령’을 내려 불허했다. 광복군 자격으로 귀환할 길이 막혀버리자 지청천 사령관은 1946년 5월 16일 광복군 해체를 선언했다. 이국땅에서 탄생했다가 이국땅에서 종언을 고한 것이다.

지난 9월 13일에는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탈출해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서 활약한 배선두 애국 지사가 별세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배 지사의 작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애국지사는 28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광복군 출신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

1.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 대원들이 서명한 태극기. 태극 문양과 4개의 크기와 배치 등이 지금과는 다르다.
2. OSS 훈련을 받고 국내에도 선발대로 들어왔던 광복군 노농서·김준엽·장준하 대원(왼쪽부터).
3. 인면전구공작대 대원들. 뒷줄 오른쪽부터 영국군 연락장교 베이컨 대위, 광복군 나동규·한지성·김상준 대원. 앞줄 오른쪽 두 번째부터 문응국·김성호 대원.
4. 9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광복군 창군 제8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5. 송기주 육군사관학교 생도대표가 광복군 선인문을 낭독하고 있다. 뒤에 걸린 사진은 80년 전 광복군 창설식 모습이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9일 복원 공사를 마친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1942년 입주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게 복원했고 내부에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시동 걸었다

7월 국민보고대회 이어 9월 제1차 전략회의



1



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동력 확보 대책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 축으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개 과제이다.

1차 전략회의는 자원 마련 방안에 초점

제1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금융권 동참 호소에 부응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등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민 참여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달려 있다”면서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필요한 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국판 뉴딜은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기회”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금융산업을 업그레이드 기회”라며 “뉴딜 펀드가 매력적 투자 대안으로 떠올라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조건이 규제 혁신인데,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여권 전체가 한국판 뉴딜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한재민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똑같이 위기를 맞았다”며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이후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은 “자신감이 커졌다”고 화답했다.

“세 가지 뉴딜펀드 조성해 시중 유동성 흡수”

홍 부총리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뉴딜펀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평균 35%까지 투자 위험을 흡수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

이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과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최대 1조 원 규모로 별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금 2억 원까지 배당 소득에 9%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 신용보증, 해지 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프라펀드 시장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존속 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금융권 참여 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받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라오스의 현대그룹’ 일군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제5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대상 수상자로 뽑혀

코라오(KOLAO)그룹은 ‘라오스의 현대그룹’으로 불린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유통, 가구유통, 물류, 건설, 골프장 레저, 일간 종합지, 은행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반도 국가에도 진출해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지 젊은이들에게도 꿈의 직장으로 꼽힌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난 오세영 회장은 성균관대 섬유공학파를 졸업하고 코오롱상사에 다니다가 해외 창업을 결심했다. 해외 출장을 다니며 눈여겨 봐둔 곳을 찾아 베트남행 비행기에 1990년 몸을 실었다. 그곳에서 봉제품을 수출하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수입해 팔아 돈을 모았으나 베트남이 중고차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1997년 라오스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한국(Korea)과 라오스(Laos) 앞글자를 딴 ‘콜라오디벨로핑’(Korao Developing)을 세우고 중고차 개조사업을 시작했다.

그 뒤 사업 영역을 차례로 넓혀 인도차이나뱅크를 중심으로 LVMC홀딩스를 세우는 가 하면, 라오스 정부로부터 7천27ha의 땅을 90년간 임차해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유칼립투스, 티크우드 등을 재배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조8천억 원. 라오스 정부 예산의 11%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냈다.

라오스 초·중·고교 학생과 청년 활동을 돕고 깨끗한 물 마시기 프로젝트를 펼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지금까지 1천만 달러(약 117억 원)를 기부했다. 라오스 정부는 이 회장에게 노동(2008년), 용맹(2009년), 경제발전(2015년) 훈장 등을 수여했다.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은 9월 7일 ‘제5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장한상)’ 대상(현정자) 수상자로 오 회장을 선정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장한상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거주국의 한인사회 발전과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앞장선 한상들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안락사 반대 영화 만든 뉴질랜드 한인 감독 양종찬 10월 국민투표 앞두고 주목 끄는 ‘잃어버린 작별’

뉴질랜드 동포 양종찬 감독이 안락사에 반대하는 줄거리를 담은 단편영화 ‘잃어버린 작별’(Lost Goodbye)을 제작했다. 지난 8월 예고편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9월 26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상영을 시작했다.

영화는 주인공(레이철)의 딸 에마가 세상을 떠난 몇 달 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레이철은 가상현실(VR)에서 숨진 딸을 만나 몇 개월 동안 억누른 감정을 쏟아낸다. 아름답고 천국 같은 가상 세계에서 에마가 비밀리에 안락사를 받아들인 이유와 딸을 보호하려던 레이철의 과거가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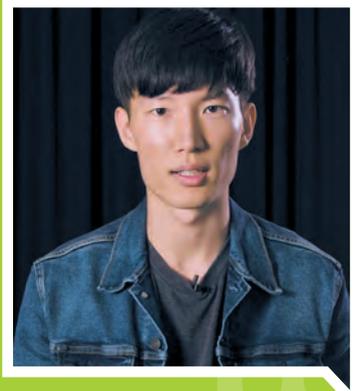
레이철 역은 TV 코미디 드라마 시리즈 ‘스텝 데이브’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시아 트로켄힘이 맡았다. 올해 뉴질랜드 국제영화제 단편영화상 후보에 오른 ‘사랑은 리얼’의 스테판 쿠체 감독이 촬영했다.



10분 분량의 짧은 영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뉴질랜드가 안락사 허용에 관해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종찬 감독은 “엄마 몰래 안락사를 받아들인 딸의 캐릭터를 내세워, 왜 일부 사람이 안락사를 원하는지 살펴보고 관객이 그 캐릭터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안락사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알려주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양 감독은 “국민들이 안락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고민한 뒤 국민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2018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6일간 물도 못 마시고 금식하면서 지냈다. 당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견디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감정 등을 영화에 녹여냈다고 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영상제작학과를 졸업한 양 감독은 워너브라더스사의 ‘메가로돈’ (2017년), 오프라 윈프리가 출연한 디즈니의 ‘시간의 주름’ (2018년), 실사판 ‘물란’ (2019년) 등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다.



뉴질랜드 동포 양종찬 감독

18년간 편부모 대학생에게 장학금 준 김예자 이사장 253명에게 4억4천만 원… “사후에도 계속 지급하겠다”

미국의 ‘리아 암스트롱 장학재단’ (LASCO)은 8월 5일 인종, 성별, 종교 등과 상관없이 어렵게 대학에 다니는 싱글 맘과 싱글 대디 19명에게 장학금을 2천 달러씩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으로 진행됐다. 예년처럼 장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지 못하자 인당 150달러를 별도로 보냈다. 리아 암스트롱은 김예자 이사장의 미국식 이름이다. 그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53명에게 37만1천 달러(약 4억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워싱턴주 터코마시에 사는 김 이사장은 1995~2000년 2년제 대학인 오번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과 이사장을 지냈다. 당시 미국에는 많은 장학금 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성적 우수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 일도 병행해야 하는 편부 편모 대학생들은 성적이 미치지 못해 신청도 할 수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 이사장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는 최대 간병 서비스 회사인 암스트롱 홈인케어를 창업했고, 재투자를 위해 암스트롱 투자사까지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2003년 사회 환원을 위해 LASCO 재단을 설립했다.

기업 가치가 정점에 달할 때 회사를 미국 기업에 매각한 그는 은퇴 이후 장학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2017년 터코마시로부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상인 ‘도시 열쇠’ (The Key to the City)를 받았고 ‘터코마시의 영웅’, ‘터코마시의 훌륭한 자선가’ 로도 뽑혔다. 한국 정부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

김 이사장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1964년 미국인 남편을 만나 이민했다. 1976년부터 재미대한부인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했고,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를 창립해 회장을 지냈다. 한반도 전문가로 불리는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의 어머니이자 유엔본부 윤리국장인 엘리자 이 암스트롱의 시어머니다. 



김예자 ‘리아 암스트롱 장학재단’ (LASCO) 이사장



전 세계 한국인 생명공학자들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로 힘 합친다

각 대학 주최로 10차례 'K-바이오X 글로벌 세미나'

한국, 미국, 유럽에서 첨단 생명과학 연구를 이끄는 한국인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나누고 토론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미국 스탠퍼드대 생명공학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한 학술단체 'K-바이오(Bio)X'는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10차례에 걸쳐 'K-바이오X 글로벌 세미나'를 열고 있다.

성균관대,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과 서강대, 숙명여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의대 등 9개 대학과 2개 연구기관이 1회씩 세미나를 주최한다.

기조 연사로는 미국의 도신후·이학호 하버드대 의대 교수, 정재웅 클리블랜드 클리닉 암 생물학과 학장, 이석용 듀크대 의대 교수, 정광훈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 권형배 존스홉킨스대 의대 교수, 구본경 오스트리아 IMBA 연구소 박사, 주철민 네덜란드 델프트대 공대 교수, 이주현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각자 연구 분야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빛내리·윤태영 서울대 교수, 한성 미국 소크연구소 교수, 장재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김철홍 포스텍 교수 등도 패널 연사로 참여해 기조 연사와 토론을 벌인다. 세미나 참가 학생들은 기조 연사·패널 연사와 질의응답을 하거나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확장할 수도 있다.

세미나 주제는 생명공학 분야의 뜨거운 이슈들이다. 시와 의학의 접목, 혈액 안에 암이 될 만한 마커(표적)를 탐지하는 기술, 최신 줄기세포 연구 동향, 하나의 세포 단위에서 유전자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단일세포 RNA 유전자 분석' 기술 등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진다.

모든 세미나는 영상회의 앱(응용프로그램) '줌'으로 진행되며 세미나마다 300~500명, 많게는 800명까지 참여한다. 녹화 영상은 K-바이오X 홈페이지(www.kbiox.org)에서 회원으로 가



'K-바이오X 글로벌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한 스탠퍼드대 리시엔 박사



입하면 볼 수 있다. SK바이오팜, LG화학, 유한양행 등 국내 기업과 포스텍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후원했다.

스탠퍼드대에서 심장발생생물학 박사후(포스트닥터) 과정을 밟고 있는 K-바이오X의 설립자 겸 대표 운영위원 리시엔 박사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 한인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국내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후학들을 위해 연사로 참여한 교수들과 대학원생·연구자 간 멘토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 박사는 "비영리 학술모임인 K-바이오X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젊은 세대 한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외 우수 연구진과의 교류는 국내 생명과학 연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노래를 감상하며 즐겁게 외국어 배우세요”

유튜브 음악 채널 개설한 호주 동포 주소현

“한마디로 ‘베짱이 언어 습득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과목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즐기고 소통하며 재미있게 언어를 익히는 방법을 나누고 싶어요.”

상승과 팝송 등 음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소피와 함께 노래 부르고 외국어 배우기’(Sing&Learn with Sophie)를 운영하는 주소현(영 어명 소피 주) 씨의 포부다.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주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월 한국에서 동생이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참석할 수 없어서 동생에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축하와 영상을 전했는데, 반응이 좋아 6월 채널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 씨가 모든 노래를 부르고 기타 반주도 직접 한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은 10여 개에 불과하고 구독자 수도 이제 100명을 넘겼지만 지인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번져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상승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을 프랑스로 부르고 프랑스어와 영어 자막을 단 영상(youtu.be/VFgTYiLcBfU)은 조회 수 3천회를 넘겼다. 같은 노래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직접 부른 영상도 구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중국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 삽입곡으로 쓰여 유명한 스페인 노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를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원어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로도 부른다. 한국 가수 김범수의 ‘보고 싶다’와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면서 한국어도 가르쳐준다.

“제가 노래와 함께 외국어를 즐겁게 배운 경험이 있어서 팝, 재즈, 상승, 스페인어 곡을 들려주며 각국 언어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클래식 아트송, 오페라 아리



유튜브 채널 ‘Sing&Learn with Sophie’를 개설한 주소현 씨.

아를 팝이나 재즈로 재해석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한국 가요도 부르면서 한국어 가사와 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 씨는 한국외대 프랑스어과 재학 당시인 1999년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최 ‘전국 상승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실력자다. 여성 작곡가와 30세 이상의 전문직 여성 가수를 발굴하는 ‘우먼 프로젝트 2’라는 앨범에 참여해 ‘이런 게 사는 거구나’(2011년 발매)를 불렀고, 방송 출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에서 4년 정도 체류하면서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자격을 땀고, 그곳에서 한국어·영어·일어 프리랜서 번역과 교습을 했다.

귀국해 국제회의 기획과 준비 일을 하던 중 3년 전 시드니공대 교수로 임용된 남편을 따라 호주에 정착했다. 국제 영어교사 자격(TESOL)과 케임브리지 영어교육자격증(CELTA) 과정을 거쳐 현재 호주영어 어학원(SCE) 등에서 국제마케팅과 어학 교습을 하고 있다.

10개국 16개 도시에서 월드옥타 차세대 창업 무역스쿨

모국 방문 교육은 10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

68개국 148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 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9월 9일 중국 지린성 옌지시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전 세계 10개국 16개 도시에서 '2020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을 개최하고 있다.

9월에는 옌지를 비롯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뉴욕, 중국 선전·선양·다롄, 캐나다 밴쿠버에서 마련했

으며 10월에는 베트남 호찌민, 대만 타이베이,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호주 애들레이드·시드니, 싱가포르 등지에서 열 예정이다.

예년에는 대륙별 통합 무역스쿨을 개최하고 지역별로 우수 수료생 100여 명을 모아 1주일간 모국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륙별 통합 무역스쿨을



2019년 월드옥타 차세대 무역스쿨 모국 방문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폐지하고 모국 방문 교육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온라인 마케팅과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함에 따라 차세대 한인 경제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차세대를 미래의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사관학교로 불리는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을 2003년부터 매년 운영하며 리더십, 창업 및 무역 실무, 한민족 정체성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 사관생도인 차세대 한인 경제인 2만3천여 명을 배출했다.

“미국 여성 투표권 획득 100주년 축하해요”

재미동포 이매자·마거릿 조, 기념 영상 100인에 선정

재미동포 여성 2명이 ‘미국 여성들의 투표권 획득 100년’을 기념하는 100인에 뽑혀 축하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소설가 이매자(미국명 매자 리 디바인)씨와 코미디언 겸 배우 마거릿 조(한국명 조모란)씨는 미국 여성 참정권 쟁취 100년을 맞아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개설한 ‘퍼스트 우먼 보터’ 사이트(www.firstwomanvoter.com) 동영상에서 자신과 가족의 투표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국은 여성운동가 등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를 제정해 연방 정부와 모든 주정부가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다. 100인에는 미셸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 부인, 장관, 대학 총장, 언론인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포함됐다.



소설가 이매자 씨(왼쪽)와 배우 마거릿 조

시애틀에 사는 이매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유교적 전통에 얽매어 살았던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의 목소리’를 2013년 영어로 출간했고, 이듬해 ‘미국 독립출판도서상’을 받았다. 수도여자사범대(세종대 전신)와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70년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샌프란시스코 태생의 마거릿 조는 정치 풍자 코미디에서 인기를 끈 뒤 TV 시트콤 ‘올 아메리칸 걸’과 영화 ‘페이스오프’, ‘네 멋대로 살아’ 등에 출연했다. 민권연맹 인권상과 아시안 법률 교육재단 행동 정의상 등을 받았다. 어머니가 한인인 미나 김스도 100인에 선정됐다. 그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수석 작가 겸 미국프로풋볼(NFL)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에 지친 우간다 의료진, 한식 도시락에 ‘뭉클’

한국대사관 · 한인회 1천700개 선물… 현지 언론 연일 보도

우간다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하병규)과 우간다한인회(회장 문일순)는 한인 식당에서 만든 한식 도시락 1천700여 개를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간다 코로나대책본부, 보건부, 몰라고병원, 엔테베병원 등 총 8개 기관에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연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대사관 후원 아래 선교사와 주재원 등 한인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다.

도시락은 닭강정, 맵지 않은 김치, 전 등으로 구성돼 한식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현지에서 세운 과일공장에서 만든 과일주스도 함께 제공돼 KOICA의 공적 개발원조(ODA) 노력도 소개됐다.



8월 31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의 코로나대책본부에 한국대사관과 한인들이 한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도시락을 선물받은 우간다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정말 맛있다”며 고마워했다. 기부와 봉사에 참여한 동포들은 “의료진의 표정과 말투에 진심이 느껴졌다”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뿌듯해했다.

우간다 신문 방송은 한국 동포들의 한식 도시락 제공 행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용 진단 키트 등 600만 달러(약 71억 원) 상당을 기부하고 우간다 내 국경 지역 난민촌에 3천700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을 언급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간다는 최근 수도 캄팔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크게 늘면서 의료진과 보건 관계자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19일 현재 우간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천 380명이고 사망자는 60명이다.

해외 입양동포와 친부모 소통 돕는 바벨탑

가족 찾기 · 서신 교환 때 재능기부로 통번역 100여 건 지원

올해 3월 초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의 도움으로 친아버지를 찾은 미국 입양동포 윤소희(미국명 케이틀린 드레이링) 씨는 매일 하루가 소중하다. 코로나19 탓에 부녀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30여 년 세월의 폭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우리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잘 알아가고 있다”면서 “핏줄을 이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아동권리보장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녀를 이어준 이는 전문 번역 플랫폼인 바벨탑(www.babeltop.net) 소속 자원봉사자 송승민(영어명 Seungmin) 씨다. 그는 친아버지의 편지를 영어로 번역해 딸에게 전해주고 있다. 송 씨는 “어렵게 서로를 찾았지만 부녀는 언어 장벽에 부딪쳐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복잡미묘한 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센터가 통번역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을 섬세하게 전달하고 한국의 사회·문화를 잘 설명해주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친부모 찾는 사연을 언론에 소개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은 노르웨이 입양인 권영숙(현지명 아그네스 달버그) 씨도 바벨탑 노원빈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노 씨는 “우리의 도움으로 꼭 친가족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바벨탑은 지난 1년여 동안 100건 넘게 해외 입양인의 통·번역을 지원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바벨탑은 지난해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외 입양동포와 친가족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2-2-6283-0477, familysearch@ncrc.or.kr)

재미 발레리노 안주원 ABT 수석 무용수로 승급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남자로는 첫 번째 영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레리노 안주원이 아메리칸 발레시어터(ABT)의 수석 무용수로 승급했다. 9월 10일 ABT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로 안주원을 포함한 6명의 수석 무용수 승급 소식을 알렸다.

러시아 마린스키,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영국 로열발레단 등과 함께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 꼽히는 ABT에서 한국인이 수석 무용수가 된 것은 두 번째며, 발레리노(남자 무용수)로서는 처음이다. 발레리나(여자 무용수)로는 서희가 2012년부터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안주원은 201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입학한 뒤 한국 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12년 불가리아 바르나국제발레콩쿠르 3위, 제13회 뉴욕유스아메리카 그랑프리 시니어 부문 금상 등을



아메리칸 발레시어터(ABT) 수석 무용수로 승급한 발레리노 안주원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를 주목한 ABT가 입단을 제의해 2014년 코르 드 발레(군무)로 합류했다. 2018년 ABT 봄철 공연인 '라 바야데르'의 주역으로 발탁돼 관객의 주목을 받았고, 2019년 9월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ABT 솔로리스트로 승급한 뒤 1년 만에 '한국인 최초 ABT 수석 발레리노'의 영예를 안았다. ABT 무용수는 85명이고 군무-솔리스트-수석 무용수 세 단계로 이뤄진다. 수석 무용수는 남녀 8명씩이다.

올 4월부터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안주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공연이 사실상 중단돼 승급 발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10월 제2회 부산발레페스티벌에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이중의 고통 당하는 재외동포에게도 재난지원금 혜택 줘야”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심상만·주점식 공동의장 성명 발표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에게도 재난지원금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 400여 명이 대표하는 이들 공동의장은 9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외동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거주국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위해 마스크와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마음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국 한인들에게 생필품과 식자재,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재외동포는 외출 금지, 통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생업을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왼쪽)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포기하는 등 살길이 막막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거주국의 열악한 의료상황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국 정부로부터도 소외되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동포를

외면하지 말고 모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간청했다.

지난해 서울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의장은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주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감안해 시기를 늦춰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창업과 벤처사업 지원 위한 '스텝 업'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 회장 조술연)는 9월 21~2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매리어트 워터프런트 호텔에서 재미동포들의 창업과 벤처사업 지원을 위한 '제회 스텝 업'(STEP-UP) 행사를 열었다. 학술 경영자와 미국 시장 진출, 식품의약품(FDA)과 규제 전략, 자금 마련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고 모든 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첨단 분야에서 창업을 구상하는 연구자, 중소벤처기업 운영자, 마케팅 · 사업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도 특별히 초청됐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미국서 제회 차세대 리더십 콘퍼런스

16개국에 39개 지회를 둔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 · 회장 정나오미)는 9월 11~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 공항에서 '제회 차세대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대면 모임을 연 뒤 이튿날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리아 암스트롱(한국명 김예자) 상임고문의 아들인 '한반도 전문가' 찰스 암스트롱 전 컬럼비아대 교수, 국제결혼여성 자녀인 매릴린 스트리랜드 워싱턴주 연방하원 후보, 혼혈 입양인 단체 'HAPA'의 티아 로고스키 대표가 연사로 나서 경험을 들려줬다.

중소기업 제품 수출 발판 기대... '옥타 온라인' 오픈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온라인몰(www.oktamall.com)을 열었다. 9월 11일 현재 옥타몰에는 K-방역용품과 장비, 시설 등 500여 종의 제품이 올라 있다. 월드옥타는 지역별로 나눠 9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웹을 통해 '옥타몰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경중 월드옥타 온라인플랫폼 사업단장은 "바이어로 참여하는 월드옥타 회원과 모국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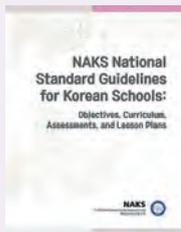


미주민주참여포럼, 유니세프에 북한 코로나 방역 돕기 성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은 9월 2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미국위원회에 북한 주민의 코로나19 방역을 돕기 위한 성금 5만6천112.50달러(약 6천660만 원)를 전달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은 6월부터 두 달간 회원과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펼쳤고 중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동참했다. 유니세프 미국위원회는 "북한 아동과 주민들에게 생수와 위생 물품을 전달하는 데 이번 성금을 유용하게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에 김점배 오만 한인회장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아중동총연)는 최근 대면과 비대면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김점배 오만 한인회장을 선출했다. 수산업계에서 일하다가 오만에서 수산업체를 창업한 김 회장은 아중동총연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2월 임도제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동안 회장직을 대행했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아중동총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내년 총회를 오만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어 학습 표준교육과정 안내서 번역 출간

미국 연방정부 비영리단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 회장 오정선미)는 한국어 학습 표준교육 과정 안내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출간했다. 'NAKS 한국어 학습 표준교육과정'은 교육 과목과 수준, 내용을 비롯해 교육환경, 학습자, 교육 방법 등 미국 내 800여 개 한국학교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오정선미 회장은 "영문판 출간은 NAKS가 명실상부하게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춘 한국어 교육기관임을 미국 정부와 교육기관에 알리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아스포라 문학의 개척자’ 조명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문학비 옆에 설명석 설치

“**낙**동강 칠백 니, 길이길이 흐르는 물
낙은, 이곳에 이르러 겹가지 강물을
한몸에 뭉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 강
을 따라 바둑판 갓은 들이 바다를 한하여
아마득하게 열려 있고, 그 넓은 들 품 안
에는 무덤무덤의 마을이 여기저기 안겨
있다. 이 강과 이 들과 거기에 사는 인
간-강은 길이길이 흐릿으며, 인간도 길이
길이 살아왔다. 이 강과 이 인간, 지금
그는 서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소설 ‘낙동강’의 첫 대목)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가
1927년 7월 ‘조선지광’(朝鮮之光)에 발표
한 단편소설 ‘낙동강’은 그의 대표작이자
프롤레타리아문학(프로문학)의 백미로 꼽

힌다. 낙동강 어부의 아들로 자란 주인공 박성운이 일제의 갈대
밭 강탈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기동줄
거리다.

그는 1923년 창작 회곡집 ‘김영일의 사(死)’와 1924년 창작
시집 ‘봄 잔디밭 위에’를 펴낸 근대문학의 선구자이다. 또한 그
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개척자이자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
린다.

1928년 소련으로 건너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
스크 등지에서 잡지를 발간하였다. 교단에 서서는 항일의를
일깨우고 인재를 길러내는 한편 산문시 ‘짓밟힌 고려’, 장편소
설 ‘붉은 깃발 아래서’와 ‘만주 빨치산’ 등을 집필했다. 그가 직
접 가르쳤거나 영향을 끼친 강태수·리시연·문금동·최영근·
김부르크 등이 고려인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영역을 만들어
냈고, 현경준이나 김학철 등 조선족 작가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1937년 스탈린 정권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
킬 때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지도자급 인사 2천500여 명



2006년 작가모임이 세운 조명희 문학비
왼쪽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8월 19일 설명석을 설치했다.

조명희의 생전 모습

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명희도 9월 18일 일제 간첩 혐의를 쓰
고 투옥돼 이듬해 5월 11일 총살됐다. 스탈린 사후 1956년 복권
돼 누명을 벗었고 1958년 소련과학원이 ‘조명희 선집’을 출간
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의 문학 업적을 기리는 기념물은 세 군데에 조성됐다. 우즈
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나보이문학박물관에는 딸 조발렌티나가
주도해 1988년 조명희 기념실이 꾸며졌다. 조명희의 고향 충북
진천에는 차남 조블라디미르가 건립비를 보태 2015년 포석 조
명희 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외국에서 활동하다 작고한 문인들
의 기념비 건립 사업을 펼치는 ‘작가모임’은 2006년 러시아 블
라디보스토크 악사콥스카야 공원에 조명희 문학비를 세웠다.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8월 19일 조명희 문학비 왼쪽에
‘조명희 재소한인 작가를 기억하며’란 제목의 설명석을 설치했
다. 문학비 건립 취지를 한글과 러시아어로 새겼다.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한 문재인 대통령
은 동포 간담회에서 한 동포의 권유를 받고 이튿날 일정을 바꿔
이곳을 찾기도 했다. [▶](#)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된 ‘북창동순두부’ 이희숙 대표

1996년 LA서 창업해 13개 직영점 체인 거느려

“**소** 뼈를 우려낸 매콤한 육수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국식 순두부 찌개를 개발하느라 어린 아들이 잠자는 동안 부엌에서 양념 실험을 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레시피는 남편에게조차 비밀로 했다. 두부는 혀에 녹을 정도로 부드럽고 고추기름은 국물에 감칠맛을 더한다. 식당이 체인으로 성장하면서 그의 요리는 미국 문화 현상의 일부가 됐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8월 27일자 지면에 ‘북창동순두부’(BCD Tofu House) 창업자인 고 이희숙 대표의 부고 기사를 싣고 그의 삶을 재조명했다. 난소암으로 5년여 동안 투병하다가 7월 18일 향년 61세로 미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고인의 본명은 홍희숙으로, 미국식을 따라 남편의 성을 썼다. 1959년 6월 서울에서 교사인 부친과 가정주부인 모친 사이에서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부친을 대신해 고교 졸업 후부터 모친을 도와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1983년 이태로 씨와 결혼한 뒤 자녀 교육을 위해 1989년 LA로 이주했다.

순두부 전문 음식점을 열겠다는 생각은 교회 예배 중 아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 떠올렸다고 한다. 세 아들은 배가 고프면 교회 건너편 순두부 식당에 가고 즐겼다.

1996년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코너 쇼핑몰에 처음 ‘북창동순두부’를 차렸다. 상호는 친척 할머니의 두부 음식점이 있던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착안했는데, 조선시대 북창동에 국고(國庫)가 있었듯이 모든 돈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뜻도 담았다고 한다.

고인은 맛의 표준화와 규격화, 1인용 돌솥밥, 조기 튀김 등으



미국 LA 한인타운의 ‘북창동순두부’ 입구.

2008년 미국 주류사회에 처음으로 김치를 납품하는 데 성공했을 당시의 이희숙 대표.

로 현지인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북창동순두부’는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은 물론 유명 스포츠 스타와 영화배우들이 줄을 서서 먹는 명소가 되었고 LA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의 조명을 받았다. 미국에 13개 직영점을 포함해 17개 매장에서 연간 수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아들인 에디 이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의과대학 조교수는 “어머니는 식탁에 내놓는 것이 무엇이든 완벽해야 직성이 풀렸다”면서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고르려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또 미국 주류사회에 김치를 납품하는 등 ‘음식 한류’(K-푸드)를 선도해 세계한상대회에서 차세대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글로벌어린이재단’ LA 지역 회장을 지내고 아시안골수기증협회 활동을 후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섰다.

NYT도 “이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해고된 직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남은 직원들이 테이크아웃 주문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수당을 주는 등 직원 복지도 애썼다”고 전했다. **창**

아베 일본 총리의 세 번째 집권은 가능할까?

사임 발표 후 이례적 지지율 반등... 의원직 유지로 여운 남겨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65)는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할 수 있을까? 사임 발표 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지지율만 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일본 최장기 총리 재임 기록을 쌓아갔던 아베는 8월 28일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1차 집권기인 2009년 9월 물러날 때처럼 지병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바닥을 치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폭등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한 달 전 36.0%에서 56.9%로 20.9%포인트나 뛰었다. 뒤이어 발표된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이가 확인됐다. 민방 TBS 계열인 JNN 조사에선 무려 27%포인트 폭등한 62%를 찍었다.

코로나19 확산과 학원 스캔들 속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물러나라고 압박하던 여론이 정작 사임을 발표하니 급작스레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과거 일본 정권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퇴진 수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한 번 인기가 떨어진 정권이 퇴임 발표 후 지지율이 반등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유를 '폐점 효과'로 설명했다. 도쿄의 유서 깊은 유원지 '도시마엔'에 폐점 직전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처럼



도쿄 중심가의 대형 스크린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 발표 기자회견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역대 최장 집권에 성공한 아베 내각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면서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나바 데쓰로 히토쓰바시(一橋)대학교 교수는 아베 총리의 치밀한 출구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분석했다. 1차 집권 때는 중도에 도망치는 듯한 인상을 줬지만,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배경을 설명한 것이 '잘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임 이유가 지병이어서 약자를 동정하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진단도 있다.

급상승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9월 16일 취임한 아베의 후계자 스가 총리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베 집권기에 잠복한 수많은 문제가 불거지면 거품 낀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금방 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 경우 자민

당 내에서 "역시 아베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번째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대를 건너뛰어 3번 이상 총리를 지낸 인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 4차례)와 가쓰라 다로(桂太郎·1848~1913, 3차례)가 있다. 아베의 나이는 올해 65세로 스가 총리보다 6살 젊고,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81) 간사장보다는 16살이나 어리다. 얼마든 정치를 더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우파 성향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버티고 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말이 의미심장하다. **[참]**

박세진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한 번에 100억 매출’ 대륙의 인플루언서 왕홍(網紅)

할리우드 스타도 출연...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 개척에 활용

‘오라인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왕홍’(網紅)은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마케팅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이를 공지하지 않는 행위)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왕홍들은 공개적으로 협찬 광고와 판매를 진행해 고수익을 올린다.

올해 7월 중국 톱50 왕홍이 올린 매출 총액은 80억 위안(약 1조3천600억 원)에 이른다. 업계 1, 2위를 차지한 웨이아(薇娅)와 리자치(李佳琦)는 한 달간 각각 21억 위안(약 3천570억 원), 14억 위안(약 2천3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왕홍은 크게 둘로 나뉜다. 홍보형은 일정액의 광고비를 받고 고용돼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 해당 제품을 홍보한다. 판매형은 한국의 쇼호스트와 비슷하게 라이브 이커머스(생방송 판매)로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진행한다. 웨이아와 리자치는 모두 판매형이다.

왕홍은 보통 한 제품에 5~10분씩 홍보와 판매를 하고, 90분 1회 방송에 9~18개의 제품을 소개한다. ‘슈퍼 왕홍’이라 불리는 정상급의 최강 매출액은 평균 100억 원 수준이다. 이들은 제품 매출액의 15~20%를 마케팅비로 받아가고, 왕홍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도 5%의



중국의 유명 '왕홍' 리자치가 온라인 방송으로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존재로 떠올랐다.

왕홍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워낙 커서 기업 처지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지만, 기업이나 제품을 알리려면 왕홍만큼 확실한 마케팅 수단이 없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할리우드 스타까지 왕홍 방송에 출연한다.

왕홍이 방송 한 번에 1백억 원 매출을 올리는 원동력은 충성도 높은 수천만의 '펀스'(粉絲·팬의 중국어 음차)다. 이들은 단순히 왕홍에 대한 호감만으로 방송에 몰려드는 건 아니다. 왕홍은 자신의 방송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역대 최저가'나 '특별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해 판매 전략을 세운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제품들도 왕홍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매일유업이 올해 상반기 리자치와 함께 진행한 유제품 음료 생방송 판매 행사에서는 5분 만에 음료 제품 20만 개가 판매돼 분당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시 접속자 수는 1천315만 명으로 매출과 별도로 광고 효과까지 누렸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여가와 소비를 즐기는 '홈코노미'와 비대면 구매인 '언택트 소비'가 중국 시장의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왕홍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

김진방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별도 배당금을 받는다.

정상급 왕홍들은 제품 선정, 마케팅 기획, 왕홍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만 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 방송 수준이 아니라 기업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 왕홍은 단순한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넘어 기존 미디어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왜지나무’

황연(중국)

주말 오전이면 아버지는 딴 사람이 된다
평생 빨랫감은 뒤집은 채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시고
설거지 한 번 도와주신 적 없던 아버지가 딴 사람이 된다

자차로 반 시간이 걸려서 도시와 한참 떨어진 외진 마을에는
간혹 지나가는 누군가의 자동차 타이어에 깔려 터지고 말라붙은
산 구렁이 껍데기가 한여름의 길바닥 복판에 종종 널려있다

돌길을 지나 작은 강을 건너 조금 걸어가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으셨고 아버지가 태어나신 낡은 벽돌집이 보인다

그곳엔 해가 들지 않는 앞마당과
오래도록 잡초만 무성했던 뒷마당이 있고
함경도에선 “왜지” 나무라고 부르는
몇십 년 전의 이 계절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두나무가 있다

아버지는 앞뒷마당에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작은 밭에 파를 심고 오이 모종을 고정하고 무 싹을 솟아낸다
잔디를 다듬고 잡초를 뽑는 긴 시간 동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아버지네 세 형제자매가 그 집을 떠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이십 년 동안 비워진 집 마당에서
아버지는 대가 없는 노동을 사명감을 안은 듯이 열중하신다

그저 티셔츠가 흥건해질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러셨듯 수격수격 농사일에 열중하신다
별에 테어 벌게진 팔뚝에 찬 수건 하나 올리시고
새참도 드시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나는 늘 생경하다

집에서나 엄마 일 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라
야채는 사 먹으면 되니 몸 혹사 시키지 마시라 철없이 굴면
아버지는 그저 늘어난 옷솟을 만지며 웃는다

시골 동네와도 한참 떨어진 외진 그곳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심고 키우신 “왜지” 나무 밑에서
과거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그러셨듯이
탐스럽게 달린 열매 하나를 따 내게 건네신다 

바른 말 고운 말

‘씩수’와 ‘싸가지’

흔히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고약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씩수가 노랗다’ 또는 ‘씩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씩수’라는 말은 ‘앞으로 일이 잘 트일 수 있는 낌새나 징조’를 뜻하는 우리 고유의 표현입니다. 줄여서 그냥 ‘씩’이라고도 합니다. ‘씨, 줄기, 뿌리 따위에서 처음 돌아나는 어린잎이나 줄기’를 일컫는 단어와 똑같지요.

‘씩수’와 비슷한 표현으로 ‘싸가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싸가지 없다’라는 형태로 씁니다. 이는 ‘씩’에 동물의 새끼나 작은 것을 가리키는 접미사 ‘아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여서 ‘어떤 일이 앞으로 잘될지를 나타내는 징조’를 뜻하게 된 겁니다. ‘씩수’나 ‘싸가지’나 뜻은 유사하지만 ‘씩수’는 표준어이고 ‘싸가지’는 되게 낮추어 쓰는 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와 ‘어거지’

우리 속담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곳곳하게 고집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는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관철해 보려는 고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억지 춘향’이라는 속담도 있지요. 고대소설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을 어르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다가 결국 옥에 가둬 핍박하는 대목을 빗대 ‘되지도 않을 일을 강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억지’ 대신 ‘어거지’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왜 그렇게 어거지를 쓰니?” 또는 “어거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어거지’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억지 부리다’, ‘억지 쓰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준어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가로 방향 열쇠

1. 서로 만남. ‘이산가족 ○○’
2. 송악산이 있는 고려 시대 수도. 2003년부터 남북한이 이곳에 공단을 조성했다가 2016년 운영을 중단했음.
3. 음력 8월 15일. 한가위라고도 함.
4. 신랑신부가 첫밤을 함께 보내도록 새로 꾸민 방.
5. 환절기에 자주 걸리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과 열이 많이 남.
8. 지폐나 동전을 넣고 커피나 담배 등을 빼내는 자동 장치.
9. 축구나 야구 등 단체 운동경기에서 팀을 대표하며 팀원들을 이끄는 선수.
11. 낱거나 흰 물건을 고침.
12.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장치 등의 힘에 의해 스스로 작동함. 수동의 반대.
14.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내는 새. ‘구○조’
16.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 ‘○○ 식품’
18. 삼국지 인물 가운데 촉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손권, 위나라는?
21.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23.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25. 선술집. 이연실의 노래 제목으로도 유명하다. “오늘도 ○○○○ 흙바람 벽엔 / 삼십 촉 백얼들이 그네를 탄다”
27. 물고기 살을 얇게 저며서 날로 먹는 음식

▶ 세로 방향 열쇠

1.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
2. 문호를 였. 개혁과 ○○
3. 로마 교황이 임명하는 가톨릭교회의 최고 고문.
4. 신문에 실을 뉴스를 만드는 사람.
6.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철도.
7. 캥거루가 사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리킴.
10. 가운데가 잘록한 나무통의 양쪽에 가죽을 메워 만든 국악기.
11. 물을 담아두는 큰 통.
13.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킴.
15.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운명이나 성격 등을 판단하는 일.
17. 나라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
19.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
20.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는 마을. 휴전 협정이 조인된 곳이다.
22. 서로 친하여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든 모임.
23. 큰아버지나 조카의 촌수.
24. 형의 반대.
26.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일.

▶ 2020년 8월호 정답

우	오	누	이	오			
거	두	절	미	승	승	장	구
머	개	자	전	산	육		
조	리	개	화	산	부	모	
약	발	신	출	수	소	힘	
돌	광	가	정	유	흥	가	
포	동	포	동	오	이	부	
물		전	우	회	부		

국방홍보원과 재외동포 호국인물 발굴·홍보에 나선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이 재외동포에 대한 군 장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우성 이사장과 박창식 원장은 9월 22일 서울 서초동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재외동포 이해 제고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군 장병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대한민국 독립과 국방에 헌신했던 재외동포 주요 인물 발굴 및 소개 등 콘텐츠 제작 ▲기타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봉섭 전문위원·박준희 연구소통부장·오상후 과장, 국방홍보원 신일현 미디어전략실장·김태형 대외협력팀장·전찬희 주무관이 배석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국방홍보원은 신문·TV·라디오·인터넷 등을 거느린 국방안보 전문 미디어기관"이라면서 "국방홍보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과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협력해 재외동포들의 독립과 호국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군 장병에게 이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외 동포 잇는 가교’ 제9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재외동포재단은 8월 28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9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OKFriends 봉사단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재외동포와 내국민의 상호 가교 역할을 목표로 매년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제9기까지 누계 508명의 단원이 활동에 참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발대식 계획을 변경, 한우성 이사장 및 대표 봉사단원 5명이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했고 나머지 단원 55명은 온라인 화상 회의로 참여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활동은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당부하고 "OKFriends 봉사단으로 맺어진 소중한 네트워크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



코로나 의료진을 향한 응원 "덕분의 챌린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제9기 OKFriends 봉사단 대표 단원들

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를 잇는 든든한 다리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창**



영화 통해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최재광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해 외에 거주하는 8살 장○○ 군은 스위스의 자연과 문화를 먼저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도 더욱 자랑스럽다는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인터넷으로 출품된 이 영화는 지난해 8월 제4회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에서 해외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국내에 사는 할머니가 대신 수상하였는데, 이를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보던 장 군의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블로그에 감회의 글을 올렸고, 이는 많은 사람에게 '세상이 정말 기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대만의 현지 초·중학교 학생들이 출품한 2회 때에 이어 3회에서는 호주의 현지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재단의 홍보 덕분으로, 캐나다 토론토 FGYS 한글 학교 학생들이 출품하여 해외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이런 새로운 시도로 국내 학생과 선생님들은 같은 또래의 해외 현지 학생이나 재외동포 학생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주요 관심사는 우리와 어떤 점은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교류들이 더욱 활성화되면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 재외동포 학생들이 자신의 특징을 살려 상호 융합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는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 사례다. 국내외 초중등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화를 출품하고 서로 교류하는 학생들의 축제다. 2회 대회부터 해외 작품이 출품되었고, 3회 때부터는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해외 부문 우수작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4회 때부터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해 정부도 인정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10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고 코로나19가 심각할 경우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영화제는 규모도 비교적 작고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서울동담초등학교가 지역사회와 영화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극영화의 산실 역할을 한 대한연합영화주식회사(답십리촬영소) 터에 1984년 학교가 들어선 인연을 기념한 것이다.

12살부터 영화감독을 꿈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에 세계 유명 영화제 큰 상을 모두 휩쓸었는데, 앞으로 그 이상의 세계적 거장들이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를 통해서 배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국내 학생들과 재외동포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함께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영화를 통한 학생들의 교류는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취소

한인정치인포럼 · 한인차세대대회 · 입양동포 모국방문사업도 무산

올해 10월 28~30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19차 세계한상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재외동포 경제인 간의 비즈니스 지원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이 매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는 해외 790명, 국내 3천692명이 참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10일 세계한상대회 제3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의 지속 및 재확산으로 인한 참가자의 안전 문제, 출입국 시 격리 조치 유지 등을 고려하여 대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재외동포 경제단체장과 국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세계한상대회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합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세계한상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리딩 CEO포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영비즈니스 리더포럼 등의 자체 프로그램과 상시 비즈니스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20년 12월 9~11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7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정치인이 모여 거주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 방안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동포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제23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9월 14~1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무산됐습니다. 11월 9~14일로 일정을 잡아놓았던 ‘2020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 방문’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멕시코와 쿠바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아리랑아카이브)

정선아리랑연구소가 2018년부터 미국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의 한인 후손으로부터 채록 조사한 아리랑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두 번째 책이다. 태평양을 건너고 카리브해를 가로질러 자신의 운명을 바꾸자했던 한인들은 고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어느덧 2021년은 쿠바 이민 100주년을 맞는 해다. 100년을 지나오면서 고단한 일상과 나라 잃은 아픔을 달래주던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되새겨보자.



일본의 이단아-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김응교(소명출판)

자이니치는 재일동포를 가리키는 ‘재일(在日)’의 일본어 표기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상을 바라보겠다는 의식이 깔려 있어 차별과 소외를 표상하는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이 책은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

학의 가치와 경계를 되짚어보는 책이다. 일본어로 쓰인 작품도 포함해 다양한 세대에 걸쳐 이어진 재일동포 문학 작가와 작품을 살펴봄에 문학적 흐름을 소개한다.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는 재일동포 문학의 새로운 해석을 읽어보자.



조선의 부자-살아 있는 조선의 상도를 만나

이준구 · 강호성(스타북스)

조선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사회·문화·경제 등 곳곳에서 고유의 특성과 위계질서가 있었던 나라다. 저자는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부를 축적했던 조선 거상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이 책은 19세기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한국과 시베리아를 왕래하며 거부가 되고, 이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시베리아에 한국국민회를 조직하여 항일정신을 고취했던 최봉준도 등장한다. 부를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권 회복에 헌신한 진정한 영웅을 만나보자.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